호매칼럼

오일장에서 만나는 소소한 즐거움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봄이 오면 섬진강의 물소리를 들으러 길을 떠난다. 이번에는 벚꽃 소식이다.

섬진강이 시작되는 곡성에서부터 하동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어느 곳에 멈추어도 아름다운 풍경이다. 차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올리브 빛 물이 오른 버드나무를 보는 즐거움도 크다.

섬진강에 벚꽃이 피었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점심때가 되어 식당을 찾았지만 번호표를 받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 낯선 동네를 기웃거리다가 때를 놓쳐 버렸다.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에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본격적인 국회의원선거가 시작되었나보다. 선거 방송과 노래가 구례군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구례 읍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이 열렸다. 장터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 시간 보내기는 안성맞춤이었다.

구례가 산수유 꽃이 만발하는 고장이라 산수유 모찌떡이 맛깔스럽게 놓여 있었으며, 옛날 사라다빵은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하였다.

시장 좌판을 보았더니 김밥, 국수 등 먹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봄날에 천막 아래서 먹는 김밥과 장터 국수는 맛이 있었다.

싸고 맛있는 간단한 점심을 해결하고 차 한 잔 할까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 장터 카페가 보였다. 장터 시장 카페에는 블루마운틴, 예가체프, 에디오피아, 케냐산 등 다양한 커피가 있었다. 주인장은 게이샤 커피를 추천하였다. 서울에서는 3만원 한다는 게이샤 커피를 6천원에 먹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오랜만에 장터를 돌아보았다. 장터에서 할머니가 직접 캤다는 쑥부쟁이, 머위도 사고, 메밀묵도 하나 샀다.

시장를 돌아다니며 반찬거리를 사다 보니 어느덧 손에는 봉지가 가득 찼다. 시장을 돌다 땅콩을 사는 사람이 많아 "땅콩은 국산인가요." 물었다. 땅콩 파시는 아저씨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국산이 아니제." 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시장에서 국산이냐고 물어본 것은 촌스런거제." 졸지에 구례 시장에서 촌년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국산을 팔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을 품으며 발길을 돌린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배가 고팠다. 순간, 발길을 잡은 것은 뻥튀기 집이었다. 장터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봉지 하나를 들고 다녔는데 그것은 견과류와 뻥튀기였다.

구례 오일장은 매달 3일과 8일에 장이 열리고 일요일은 구례에 여행 오신 분을 위해 장터가 열린다.

장터 하면 생각나는 국밥집과 막걸리와 전집은 보이지 않고 과일 생즙, 오렌지주스, 커피 등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더 많았다. 소비자의 삶과 패턴에 따라 장도 변하는가 보다.

장터 과일, 야채 가게를 돌다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은 대파 가격이었다. 그동안 대파 기사로 정치판을 흔들다 보니 대파 가격에 파-하고 웃으며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현상이다.

봄비가 많이 내려 채소가격이 다른 해에 비해 가격이 올랐으며 과일도 평소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사과를 사기 위해 봉지를 들었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수입산 포도를 사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봄철이라 표고버섯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손수 키웠다는 버섯을 한 아름 더 안겨 주었다. 바로 이런 것이 오일장의 맛이 아닌가 싶다.

봄이라 그런지 오일장 꽃가게는 다양한 봄꽃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수생식물을 살까 하고 환하게 핀 꽃을 구경하면서 꽃가게를 살피고 있는 할머니 두 분이 꽃을 보면 예쁘다하자 할미꽃 이름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이고 나도 할매인디 꽃도 할매네. 어짜쓰까 이 꽃은 살지도 않았는데 할매가 된 것이여. 이 꽃 인생도 짠하네. 나라도 사야 쓰겄네" 하면서 할미꽃 화분 두 개를 들었다.

일요일에 열린 오일장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장터를 돌고 나오면서 어린 시절 10리 길을 걸어 담양 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따라간 장터에서 먹었던 멸치국수 한 그릇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맛이다. 담양관방제림에서 국수를 먹어 보지만 어릴 적 먹었던 국수 맛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은 처음 먹었던 맛에 대한 기억이 컸기 때문이다.

벚꽃구경을 간 봄날에 우연히 들렀던 장터에서 소소한 일상은 활기를 주었다.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의 올리브 빛 물이 든 미소는 봄날의 아름다운 삶의 한편을 기억의 창고에 저장했을 것이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 '소방차 길 터주기'

서 화 영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누구나 도로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 소리는 누군가에겐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소방대원의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화재는 화재 초기를 거쳐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화재 발생 후 평균 8분이 지나면 최성기의 상태가 되어 고립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최성기 도달 전 '골든타임 7분'을 목표로 정해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골든타임 도착률은 59.2%로 섬마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에 완도소방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의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야말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를 당부드린다.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하게 관리하자

이 개 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는 46만 4928대로 집계 됐으며 구매 대수 또한 22년 전 분기 대비 11.6% 증가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춘천시 한 마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광주에서는 충전 중이던 승용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는 전기차가 교각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 운전자가 사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기차 화재는 매년 2배씩 증가했으며, 2021년 24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2년 43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7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72건 중 9건은 충전 중에, 27건은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결함 등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으며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방대원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룸을 열어 화점에 물을 뿌림으로써 화재진압이 가능하지만,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위치한 전기차의 경우 물이 침투하기가 어렵고 소화하기 위해선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장시간 배터리를 냉각시키면서 산소를 차단하거나 냉각수조를 이용해 배터리의 냉각 및 질식 효과를 만들어 연쇄반응 폭주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물과 시간이 소비된다.

전기차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평소 전기차의 과충전을 주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충격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리한 진압 활동은 자제하고 즉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속히 119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5691-1976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560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3610-9153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4644-8383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